“법장 대종사, 사람 중심 보살행 펼친 자비보살”

수덕사 · 동국대 불교학술원
법장 대종사 20주기 학술대회
대종사 삶, 수행, 실천행 조명
9월29일 다례재서 행장집 봉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 대종사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삶과 수행, 활동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입도 없고 밑도 없다.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我有一鉢囊 無口亦無底 受受而不濫 出出而不空).’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재직 중 원적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1941~2005)의 열반송이다. 생전 법장 대종사는 자신의 취미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바랑에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슬픔, 번뇌를 담는 일”이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중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비로 품었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바랑에 담으려 했던 법장 대종사의 삶과 수행, 실천행 등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5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낌없이 주고 가신 인곡당 법장 대종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종사의 수행과 법맥, 사회사업, 종무행정 업적 등을 살핀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발표에서는 대종사가 보여준 보살행의 면면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인곡동 법장 대종사의 출가와 수행’을 통해 보살행 실천자로서 법장 대종사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법장 대종사의 보살행 키워드는 ‘사람(人)’에 있음을 주목했다. 출가 본사인 수덕사에서 경허·만공 선사로 대표되는 수행 가풍을 체득한 법장 대종사는 1981년을 기점으로 종단 안팎에서 활동하며 보살행을 전개했다. 종단 내부에서는 승려노후복지, 유아원·어린이회관 운영 등을, 외부적으로는 재소자 교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나눔운동 등을 추진했다.

법정 대종사가 선도적으로 전개했던 승려노후복지와 생명나눔운동을 예로 든 이 교수는 “대종사의 보살행은 구체적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연민과 동체대비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대종사의 실천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종단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중생 개개인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봤다.

이어 “보살행은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타자도 이익되게 함으로써 각자(覺者)가 되어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법장 대종사는 삶의 현장에서 보살행을 실천으로 구현해 낸 수행자였다”며 “대종사의 보살행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종단 내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사회활동’을 통해 2003~2005년 총무원장 재임 시기 사회활동을 분석했다. 이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법장 대종사의 사회 참여는 생명과 환경, 평화와 화해, 타종교와의 공존, 국가 간 대화와 외교적 평화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다.

이 국장은 “법장 대종사의 사회참여는 불교교리와 사회실천의 통합적 접근을 보여준다”면서 “△생명나눔운동에서 동체대비 사상의 실천 △평화외교에서 중도·화쟁 정신 구현 △환경운동에서 연기적 생명관의 적용 등은 불교가 단순한 개인 수행 전통이 아닌 현대사회의 과제에 대응하는 생활철학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불교는 대종사가 보여준 참여의 유산을 계승해 제도·철학적 기반 위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덕사와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기념사업회는 오는 9월 29일 봉행되는 법장 대종사 추모 다례재에서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행장집’을 봉정할 예정이다.

‘불교 지관 수행’ 면면을 논하다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

불교 지관(止觀) 수행의 전개와 활용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의 지관, 그리고 마음공부-불교 수행의 현대적 활용’을 주제로 제9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관론과 대행 선사의 지관 수행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오전에는 원영상 원광대 일본어교육학과 교수가 ‘일본불교의 지관 수행 전개와 활용’을,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현대적 활용 재고’를, 박보람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중국 화엄불교의 지관론과 그 의의’를 발표한다.

이어 오후에는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국불교의 지관 수행과 그 활용’을,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가 ‘대행선의 지관 수행과 마음공부’를 소개한다.

논평자로는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김천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국보 승격 송광사 불화들, 첫 서울 나들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전시 성보 교체
5월 20일~6월 29일


국보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국보 승격 후 처음 서울서 전시된다.

지난해 국보로 승격된 순천 송광사 불화들이 첫 서울 나들이를 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현재 성황리에 전시 중인 기획전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의 전시 불화를 대폭 교체해 친견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고 5월 26일 밝혔다.

교체되는 성보유산은 여수 흥국사 ‘십육나한도’(보물) 6점 중 나머지 3점과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팔상도’(국보) 9점을 포함한 2건 12점이다. 특히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경내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의겸 스님이 주도해 1725년에 조성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와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의 대표적인 장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팔상도’는 전체 폭의 완형을 갖춘 매우 귀중한 사례다. 2024년에 학술적·예술적·종교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됐다. 송광사 이외의 장소에서 전체 폭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보 승격 이후 첫 공개라는 점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교체 전시 성보유산들은 전시 종료일인 6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문명대 교수 발견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되나

ICOMOS, 등재 권고 통지해
7월 세계유산위서 최종 결정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가 발견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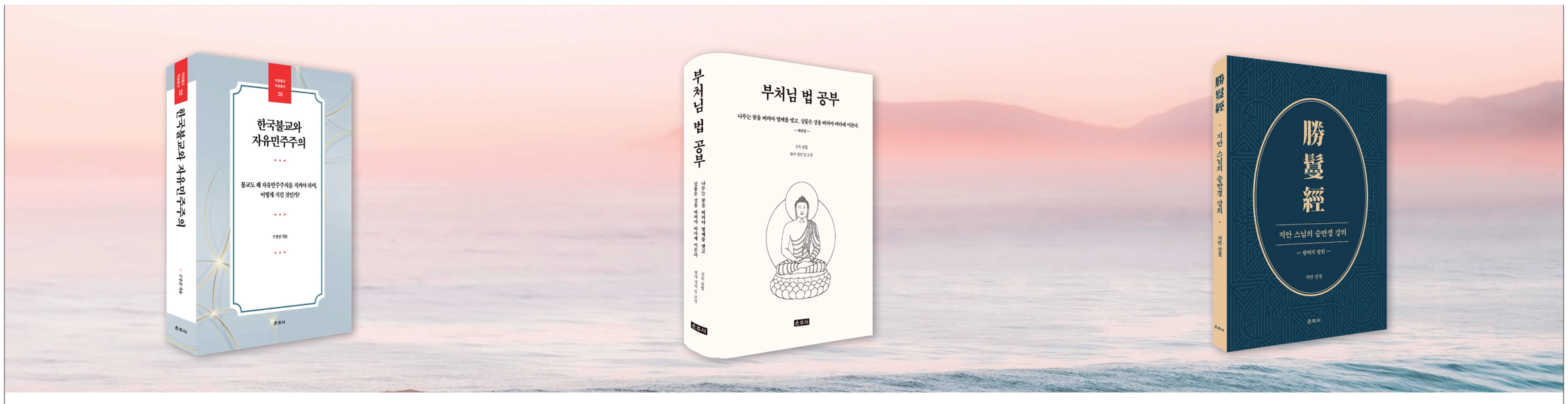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사진〉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이다. 한반도 선사인들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는 ‘반구천 암각화’는 불교미술사학자 문명대 명예교수가 원효스님이 주석하며 〈초장관문(初章觀文)〉,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 등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반고사(磻高寺)를 찾고자 조사하던 중 1970년, 1971년 잇달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며 “선사시대부터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